

민족 정체성의 건축적 구현: 1900년 전후의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에 관한 고찰

金 顯 燮

(헬싱키대학 + 알바 알토 아카데미 객원연구원, 건축학박사)

주제어 : 민족 정체성,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근대건축

1. 서론

민족 정체성의 건축적 구현은 한국 건축계의 오래된 화두이다. 전통건축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의 비교연구나 탈식민논의, 그리고 서구화된 근현대 건축에서 ‘우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은 이를 충분히 입증한다.¹⁾ 그렇다면, 한 민족의 정체성은 건축에 어떻게, 얼마만큼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민족 혹은 국가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건축으로 드러내려는 노력은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근대건축의 ‘국체주의’ 교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나 지역을 제외한다면, 민족이나 국가,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키려는 시도는 보편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일례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북유럽이나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건축이 그러하고, 나치 독일의 건축정책은²⁾ 악명 높았으며, 현대건축에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³⁾ 이러한 역사

에 대한 고찰은 ‘건축에의 민족 정체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건축역사학계를 멀찌감치에서나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바탕 위에서 본 논문은 1900년을 전후로 한 핀란드건축의 이른바 ‘민족낭만주의’ (National Romanticism)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세기 전, 핀란드라는 유럽의 한 변방 민족의 건축 양상이 지금의 우리에게 유효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핀족 혹은 핀란드라는 나라가 갖는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유사점이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특히, 1917년 전까지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얻지 못했던 모습이나 그들의 독립을 향한 민족주의운동이 우리의 과거와 닮음꼴이다. 이 논문에서 당대 핀란드의 경우 ‘국가’라는 개념 대신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더불어 우랄어족 (Uralic 혹은 Finno-Ugric family)에 속하는 핀란드어와 알타이어족 (Altaic family)에 속하는 한국어는 서로 교착어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⁴⁾ 라울

런 흐름의 단면을 보여준다.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1983 and Liangyong Wu, 「Architecture in the new millennium」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 5, Spring 2000, pp. 9-19.

4) 예를 들어, 핀란드어의 특성으로 꼽히는 교착성 (agglutination), 모음조화 (vowel harmony), 자음동화

1) 일례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한국건축역사연구 2』 (발인, 2003)를 보시오.

2) 나치 독일은 근대건축(Neues Bauen)을 억압하고 게르만의 건축양식(‘German’ or ‘national socialist’ style)을 조장하였기 때문에, 근대 건축가들은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건축경찰 (Baupolizei)을 피해 타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 독일의 건축과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Barbara Miller Lan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3) 프람턴의 ‘critical regionalism’(1983)이나 1999년 북경 UIA에서 위량용의 ‘glocal (global+local) architecture’의 주장은 이

프 글란빌이 일찌기 핀란드어와 핀란드 건축 사이의 연관을 규명하려 시도했듯,⁵⁾ 언어와 건축 사이에 무의식적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라는 근대 건축 거장에 의해 이룩된 핀란드건축의 국제적 지위는, 부정할 수 없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⁶⁾ 즉, 알토(를 비롯한 핀란드 근대 건축가들)가 태어나고 교육받은 시기의 건축 상황이 신고전주의(혹은 북유럽 고전주의, Nordic Classicism)와 더불어 민족낭만주의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알토 자신이 핀란드라는 나라를 대표할만한 건축어휘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림 17).⁷⁾

웹스너 이래 주류를 이루었던 사관은 일차대전 전의 모든 건축·흐름들이 근대 이성주의를 향해 수렴되어가는 구도였다.⁸⁾ 그러나 바바라 밀러 래

인이 적절히 지적했듯, 그 이전의 다양한 흐름들을 이해한 후에야 만이 우리는 근대건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⁹⁾ 하지만 이러한 입장 역시 충분치는 않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건축 흐름이 반드시 다음 시대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즉 핀란드의 민족낭만주의 건축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고찰의 대상이다. 이 논문은 1900년 전후, 건축가를 포함해 핀란드 지식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건축에서 민족성 구현에의 노력, 그리고 민족낭만주의 건축이 가지는 한계 및 의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까렐리아니즘 (Karelianism): 19세기 말 핀란드 민족 정체성에의 갈구

핀란드(Finland, *Suomi*)는 유럽의 북동쪽 끝에 자리하였으며, 영토의 3분의 1가량이 북극권에 놓여있다 (그림 1).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야기한다. 이는 땅의 3분의 2가 숲이고 내륙이 55,000여 개의 호수로 덮여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낮은 인구밀도의 이유를 대변해준다. 지중해의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 문명은 북유럽의 끝자락까지 이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때때로 중심에서 소외된 변방으로 혹은 미지의 땅(*terra incognita*)으로 여겨졌다.¹⁰⁾ 핀란드라는 땅덩어리가 가진 독특성 이상으로 핀(*the Finns, suomalaiset*)이라는 민족은 여러 면에서 유럽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 가장 손꼽히는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언어의 문제이다.¹¹⁾ 여타 유럽 국가들은 물론 스칸디나비아나 슬라브계 주변국들과도 다른 언어로 인해, 지리적 인접성에

(consonant gradation) 등은 한국어가 가지는 성격과 많이 닮아있다.

5) Ranulph Glanville, 『Finnish Vernacular Farmhouses, 『AAQ』, vol. 9, no. 1, 1977, pp. 36-52.

6) 알토를 중심으로만 핀란드 건축을 바라보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를 통해 핀란드 건축이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며 결과적으로 핀란드 건축이 근대건축계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핀란드 다음 세대 건축가들(Pallasmaa, Mikkola 등)의 알토에 대한 항거에 대해서 다음을 보시오. Göran Schildt, 『Alvar Aalto, The Mature Years』, Rizzoli, 1991.

7) 예를 들면 북극광을 상징하는 파동 치는 커튼월, 호수를 연상시키는 무정형의 건축물이나 유리그릇, 숲의 뾰족한 침엽수림을 암시하는 수직선의 반복 등은 핀란드 건축을 대표하는 어휘가 되었다. 기디온은 알토가 가는 곳마다 핀란드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한다. 'Finland is with Aalto wherever he goes. It provides him with that inner source of energy which always flows through his work. It is as Spain is to Picasso or Ireland to James Joyce.'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 620.

8) 웹스너에 의하면 모리스에 의해 시작된 근대운동은 1900년 전후의 선구자들에 의한 기계미학으로 깊어졌으며 1914년 그로피우스에 이르러 종합을 이루었다. '... the new style, the genuine and legitimate style of our century, was achieved by 1914. Morris had started the movement by reviving handicraft as an art worthy of the best men's efforts, the pioneers about 1900 had gone further by discovering the immense, untried possibilities of machine art. The synthesis, in creation as well as in theory, is the work of Walter Gropius.'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1975, p. 38. 하지만 그의 단선적 역사관은 기디온이나 히치콕 등의 사관과 더불어 후대 사가들에 의해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커티스나 블룬델 존스의 근대건축역사서 서론을 보시오. Will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1st 1982) and Peter Blundell Jones,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

s』, Architectural Press, 2002.

9) 'Only afte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Romanticism is fully understood will it be possible to return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early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Barbara Miller Lane, 『National Romanticism and Modern Architecture in Germany and the Scandinavian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17. 여기에서 래인은 민족(국민)낭만주의만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

10) 핀란드 역사에 관한 가장 알찬 개론서로는 다음을 보시오. Fred Singleton, 『A Short History of Fin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1) 'Finnish is a strange-to-us language.' Glanville, 앞의 글, p. 48.

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늘 구별된 민족정서가 내재해 있었다. 지금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역사의 여명기에 핀족이 유라시아대륙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정착했다'는 인종적 기원에 관한 낭만적 이론이 19세기 학자들 사이에 대두되기도 했다.¹²⁾ 그럼에도 그들은 1809년까지 약 7세기 가량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 후에는 100년이 넘도록 러시아의 대공국(大公國, Grand Duchy)으로 남게 되어, 민족적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독립 국가를 형성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18세기 후반 이래, 괴테나 셸러 등 여러 지식인들의 활동에 의해 전 유럽에 걸쳐 팽배하게 된 민족주의적 움직임은, 핀란드의 경우 1835년 엘리아스 뢰넛(Elias Lönnrot, 1802-1884)의 『칼레발라』(Kalevala) 출판으로 결정적 모멘트를 갖게 된다.¹³⁾ 이는 까렐리아(Karelia)라고 불리는¹⁴⁾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뢰넛이 핀란드의 구전 민담이나 시가류를 수집하여 편집한 것으로 1845년에는 좀 더 보강된 2판이 출간되어 명실 공히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사시대 핀족의 기원과 토착 신앙, 그리고 다양한 모험의 전설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 삶의 근원이 되는 자연에 대한 밀착성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로 인해 핀란드 지식인들 사이에서 민족 자각과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촉발되었으며, 1860년대 쉬넬만(Snellman)의 슬로건은 이를 잘 반영한다: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러시아인이 될 수 없다. 우리, 핀란드 사람이 되도록 하자."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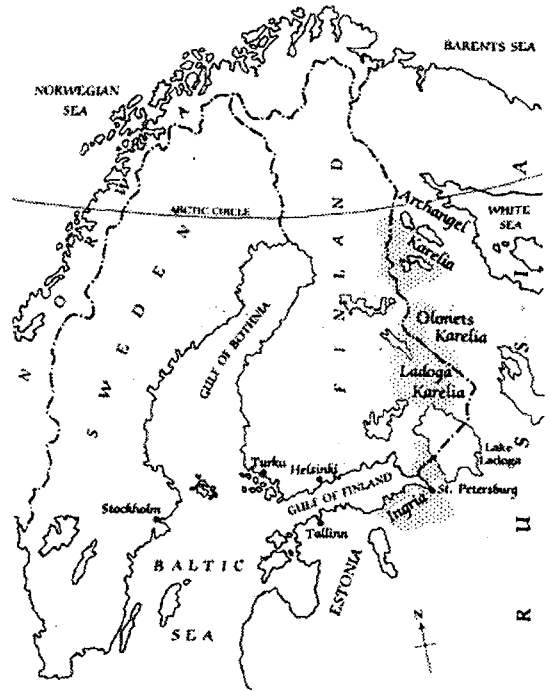


그림 1. 까렐리아 지역이 표시된 핀란드 지도, 1944년 이전의 국경

핀란드인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움직임은 1894년에서 1917년까지 니콜라스 2세의 강화된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에 의해 더욱 확산된다.¹⁷⁾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민족 정서를 소재로 한 회화, 문학, 음악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젊은 미술가, 음악가, 문학가들이 『칼레발라』의 배경이 되는 까렐리아 지역의 순례를 통해 민족주의에 입각한 예술적 창작에 영감을 불어넣었는데, 민속학자 위료 히른(Yrjö Hirn, 1870-1952)은 이를 '까렐

12) Singleton, 앞의 책, p. 75.

13) 칼레발라 첫 판의 제목은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하는 뢰넛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 'Kalewala, taikka Wanhoja Karjalan Runoja Suomen kansan muinosista ajoista' (The Kalevala, or old Karelian poems about ancient times of the Finnish people), Elias Lönnrot (translated from Finnish into English by Keith Bosley), 'Introduction' 『The Kalevala』,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4) 'There were four main areas which provided the raw material for Lönnrot's various compilations - Archangel Karelia, between the White Sea and the Russo-Finnish border ...; Olonets Karelia and Ladogan Karelia, further to the south; and Inkeri (Ingria), around the head of the Gulf of Finland.' Singleton, 앞의 책, p. 71. (그림 1 참조)

15) Lönnrot, 앞의 책.

16) "Swedes we are not; Russians we cannot become. Let's be Finns." Marc Treib, 『Gallen-Kallela: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n Architect』 『AAQ』, vol. 7, no. 3, September 1975, pp. 3-13. 그러나 Treib는 이 슬로건의 주창자를 쉬넬만이 아닌 아빈슨(A. I. Avidsson)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17) 1890년대의 강화된 러시아화 정책에 대해서는 레인이 간결하게 요약했다. 'In 1891, Russia took over Finnish postal services, customs, and currency; in 1892 it began to rescind Finnish religious freedoms. Under Governor General Bobrikow (1898-1904), Russian was to be the first language in the schools. Russians were to be the principal administrative officers through Finland; Finns were to be drafted into the Russian army. The rights of the Finnish Parliament were abrogated in a number of ways, and the constitution itself was threatened.' Lane, 앞의 책, 2000, p. 92-93.

리아니즘(Karelianism)이라 명명하였다.¹⁸⁾ 이러한 예술가들의 대표적인 예로, 작곡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 1865-1957)나 시인 에이노 레이노(Eino Leino, 1878-1926), 화가 아크셀리.갈렌-갈렐라(Akseli Gallen-Kallela, 1865-1931)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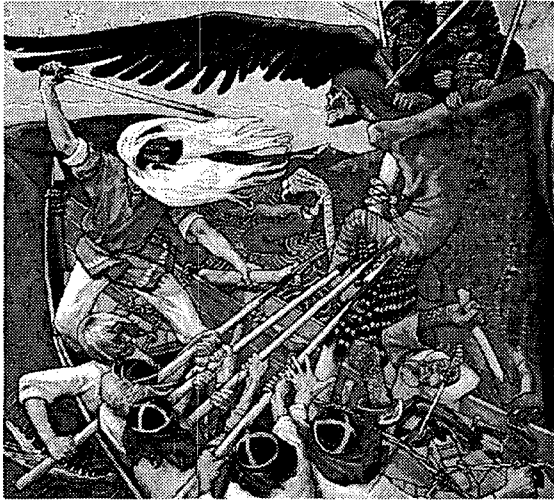


그림 2. 「The Defence of the Sampo」, 갈렌-갈렐라, 1896: '삼뽀'(sampo)는 『칼레발라』 이야기의 중요 소재로,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지는 마법의 물건이다.

3. 민족 정체성의 건축적 구현을 위한 시도

이러한 핀란드의 민족주의적 움직임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 못지않게 건축에서도 활발하게 있었다. 특히 건축이라는 장르가 그 물리적이고 공공적 특징으로, 또한 종합예술(Gesamtkunstwerk)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데 다른 장르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갈렌-갈렐라, 라르스 송크(Lars Sonck, 1870-1956), 그리고 3인조로 왕성히 활동했던 엘리엘 사아리넨(Eliel Saarinen, 1873-1950), 아르마스 린트그렌(Armas Lindgren, 1874-1929), 헤르만 게젤리우스(Herman

Gesellius, 1874-1916) 등이 있다. 그들이 활약할 당시 핀란드에서는 다른 유럽의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고전주의양식이 지배적이었다. 수도 헬싱키는 러시아에서 활약하던 독일인 건축가 칼 루드비히 엔겔(Carl Ludwig Engel, 1778-1840)에 의해 주요 건물들과 도시 체계가 엄격한 고전주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그림 3), 19세기 후반에도 스웨덴에서 유학한 고전주의 성향의 건축가들이 주도적이었다.¹⁹⁾ 19세기 말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고루한 아카데미즘이나 무의미한 역사양식의 반복은 극복의 대상이었으며, 그 대신 그들은 주변 열강의 건축양식에 매 묻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칼레발라』나 아련한 중세의 이미지로 눈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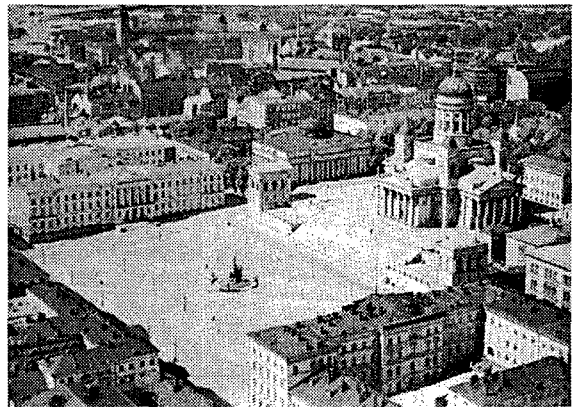


그림 3. 엔겔에 의한 헬싱키의 Senate Square, 1818-40

이 연구에서는 민족낭만주의 건축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카렐리아에서 발견되는 토착농가 건축의 형식이고(그림 5), 둘째로는 중세의 성곽과 교회당의 형식이다(그림 9). 전자가 대개 통나무무리는 재료를 이용하여 주거 건물에 차용되었다면, 후자는 화강암을 이용한 공공건물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범주에 명확히 들어가기 모호한, 즉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가 개인의 상상력에 더 의존한 건물들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각 형식에 속하는 건물들의 예를 들고 그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18) Janne Gallen-Kallela-Sirén, 「Akseli Gallen-Kallela: The Renaissance Man of Finnish Art, 1865-1931」, 『Kalela』, [online], The Kalela Museum, 2003a. Available from: <http://www.kalela.net/Akseli%20Gallen.htm> [Accessed 28th January 2004].

19) James Maude Richards, 『A Guide to Finnish Architecture』, Hugh Evelyn, 1966, p. 62.

3-1. 모토(母土)로의 귀의: 토착농가 목조 건축 형식

이 범주에 속하는 건물은 대개 민족주의 예술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의 작업실 겸 주거건축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갈렌-갈렐라의 갈렐라(Kalela, 1891-95), 조각가 에밀 비끄스트룀(Emil Wikström, 1864-1942)의 싸아끄스마끼(Sääksmäki, 1893-94), 송크가 설계한 자신의 집 라세스 빌라(Lasses Villa, 1895; 그림 6) 및 시벨리우스를 위한 아이놀라(Ainola, 1904-11)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까렐리아 지방의 목조 농가를 모델로 지어졌으며, 도시와 떨어진 숲이나 호숫가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예술가들을 위한 격리된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는 실제적 기능과 더불어, 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모토(母土)에의 애정과 밀착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갈렐라(Kalela)를 예로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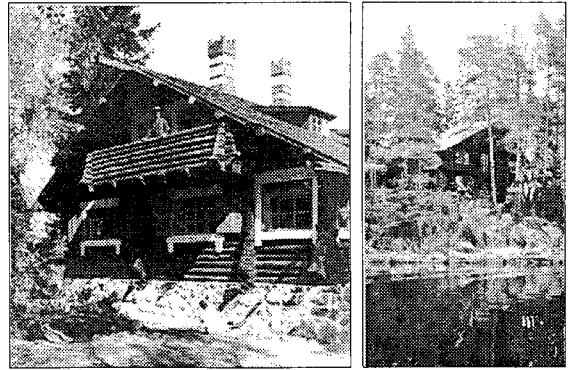


그림 6. 라르스 송크의 라세스 빌라, 1895 (좌) 및 호수 쪽에서 본 갈렐라, 1891-95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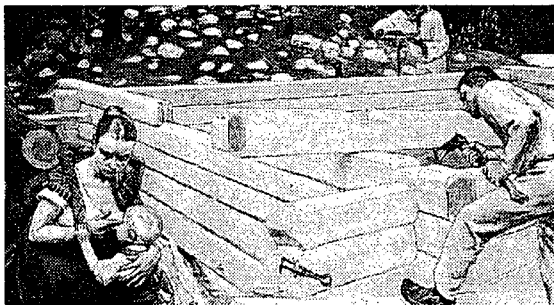


그림 4. 「Rakennus」 (Building), 갈렌-갈렐라, 1903: 아이를 보듬고 수유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황량한 숲속의 안식처로서의 주거를 상징함과 동시에 대자연을 품는 母土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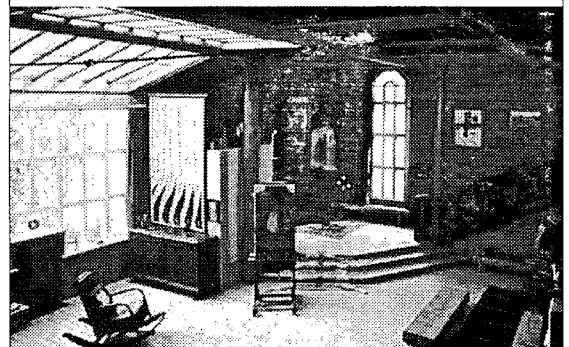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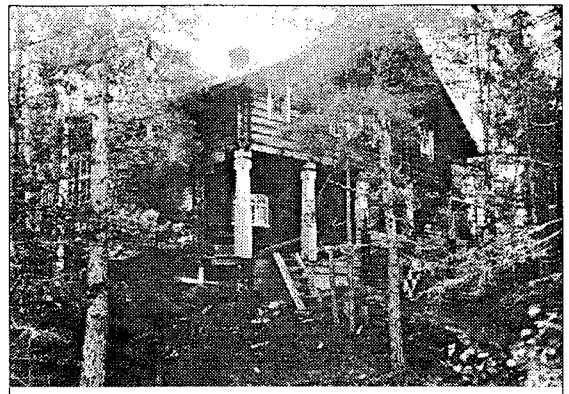


그림 7. 갈렐라 서측면 (상) 및 스튜디오 겸 거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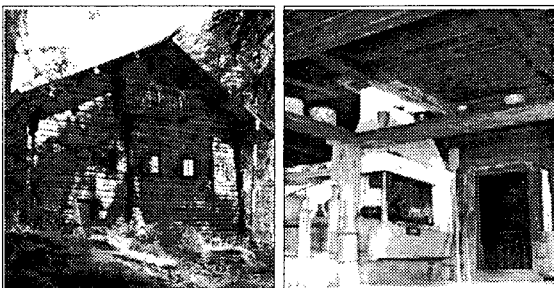


그림 5. 까렐리안 토착농가, Seurassari Open-air Museum: 외관 (좌) 및 실내 뚜빠 (우)

갈렐라는 헬싱키 북서쪽으로 약 193 km 가량 떨어진 루오베시 호수(Lake Ruovesi)가에 위치한 2층의 통나무집이다. 이 스튜디오 하우스가 ‘민족낭만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환경적 측면으로, 호수에 바로 면한 숲속에 주택이 지어졌다는 것은 핀란드인의 민족정서적 고향인 물과 나무, 그리고 땅으로의 귀의를 의미한다(그림 6, 우).²⁰⁾

둘째는 재료적인 측면이다. 갈렐라는 핀란드 토착 농가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몸체 전체가 목재로 지어졌다. 더불어 이 주택 동측에는 육중한 화강암으로 구축된 기초와 지하실을 볼 수 있다. 이는 19세기 말 핀란드에서 유행하던 자연석 사용을 반영하며 - 즉,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두 번째의 석조건축 형식과 일치한다 - 그 참조물은 남부나 남서부 핀란드의 돌로 지어진 교회당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구축적 측면으로서, 이 주택의 벽은 사각으로 다듬은 통나무를 가로로 쌓아올려 만들어졌다. 그리고 양측이 만나는 모서리에 홈을 내어 엇갈리게 걸구했고 끝부분은 약간씩 튀어나오도록 남겨두었다. 이는 핀란드 각지에서 발견되는 토착 목조건축의 기본 구축법으로, 건축현장에서 도끼와 톱 등의 연장을 가지고 일한 지역 목수들의 전통적 수작업 솜씨를 보여준다 (그림 8).²¹⁾ 넷째는 평면 및 입면적 측면이다. 평면적으로는, 스튜디오로 사용되는 커다란 중앙 홀이 핀란드 농가의 뚜빠(tupa)적 요소로 (그림 5, 우) 혹은 내외부 공간의 미묘한 전이를 나타내는 실내 코트야드(interior courtyard)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²²⁾ 그리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박공지붕이나 비교적 단순한 입면도 역시 소박한 소작농가의 특성이다. 다섯째로, 실내의 가구나 조각, 그리고 갈레발라에 조예가 깊었던 아내 메리 슬뢰르(Mary Slöör, 1868-1947)에 의한 직물류 등의 수공예품에서 역시 까렐리아의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갈렐라가 핀족의 정서를 깊게 머금은 데에는 이러한 건축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갈렌-갈렐라라는 인물이 접하는 민족예술운동에서의 위치이다. 그는 핀란드 민족주의 운동이 절정에 달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미술가로서 '핀란드 미술의 르네상스 맨'으로

불릴 정도로 진 생애를 걸쳐 6000여 드로잉과 2000여 회화 등을 비롯한 많은 미술작품을 남겼으며,²³⁾ 그중 많은 작품이 '까렐리아니즘'을 위시한 핀란드의 민족성을 내포하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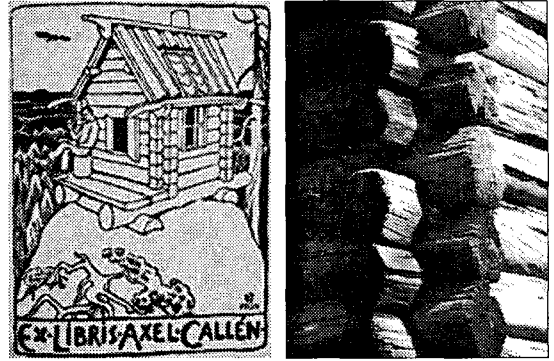


그림 8. 갈렌-갈렐라의 장서표 (Ex Libris), 1904 (좌) 및 핀란드 토착농가의 목조 걸구 상세 (우)

3-2. 전설 영웅의 강인함: 중세 석조건축 형식

핀란드의 민족주의 건축가들은 선사의 시기나 외세에 의해 침략받기 전인 이른 중세의 이미지를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창조 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칠게 각은 화강암을 매우 민족적인 재료라 여겼다.²⁵⁾ 즉, 초기 중세적 이미지의 굳건한 석조건물이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의 중요한 유형으로 채택된 것이다. 최초로 지어진 이 유형의 건물은 사아리넨, 린트그렌, 게첼리우스 트리오가 설계한 뽀호올라 보험회사 건물(Pohjola

20) 지금도 여전히 핀란드인들은 바쁜 도시생활에 찌든 때를 숲 속 호숫가에서의 휴가를 통해 쉼는다.

21) Gallen-Kallela-Sirén에 의하면 갈렐라 시공에는 갈렌-갈렐라의 건축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도끼, 톱 및 현장에서 즉석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시공한 13명의 목수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 Janne Gallen-Kallela-Sirén, 『Kalela: The Cradle of Axel Gallén's Art and Modern Finnish Design』 『Kalela』 [online], The Kalela Museum, 2003b. Available from: <http://www.kalela.net/Akseli%20Gallen.htm> [Accessed 28th January 2004].

22) 핀란드 토착농가의 다목적 홀인 뚜빠(tupa)나 내외부 공간의 미묘한 전이에 대해서는 Glanville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23) Treib, 앞의 글, p. 12.

24) 특히, 갈렐라(Kalela)에서 보낸 시기에 창작된 일련의 작품들이 『갈레발라』 스토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1896년 작인 '삼뽀의 방어' (The Defence of the Sampo) (그림 2), 1897년 '렘민카이넨의 어머니' (Lemminkäinen's Mother), 1899년의 '쿨레르보의 출전' (Kullervo Rides to War)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회화뿐 아니라, 그는 관화나 에칭, 스테인드글라스 등에서도 선구적 작품을 남겼으며, 1900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핀란드관 천정에 갈레발라 영웅들의 기념비적 프레스코화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Gallen-Kallela-Sirén, 앞의 글, 2003a.

25) 핀란드에서 화강암의 실제적, 상징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튼이 1964년 『Progressive Architecture』에 쓴 글에서 처음 제기한 듯하다. 이 글은 다음의 책에 한 장으로 속해있다. Leonard K. Eaton, 『Finnish Architecture: The Richardsonian Phase』 『American Architecture Comes of Age: European Reaction to H. H. Richardson and Louis Sullivan』, MIT Press, 1972, pp. 176-207.

Insurance Company, 1901; 그림 10)로 볼 수 있다. 헬싱키의 알렉산더린까뚜에 면한 이 상업건물은 건물 모서리 상부에 세워진 뾰족탑이 일차적으로 그 이미지를 좌우하며, 다음으로는 입면이 화강암과 활석의 거친 마감으로 두드러져 '핀란드 정신의 육중함'(the gravity of Finnish mentality)을 드러내는 건물로 일컬어진다.²⁶⁾ 그리고 출입구의 좌우나 벽면에 조각되어진 야생동물이나 전설적 악귀의 상들은 갈레발라 서사시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유형에 속하는 그 이후의 대표적 건물로는 앞의 트리오 건축가가 설계한 핀란드 국립박물관 (Finnish National Museum, Helsinki, 1902-12; 그림 11), 똥크의 땀삐레 성당(Tampere Cathedral, 1902-07; 그림 12)과 전화국 건물(Helsinki, 190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화강석을 거칠게 깎아 입면을 축조함으로 핀족의 고된 역사적 역경을 상징함과 동시에 전설 영웅들의 강인함, 그리고 현재 처한 민족의 수난에의 극복의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높은 교회 첨탑이나 중세 성곽의 탑을 세워 픽취레스크한 실루엣을 창출함으로써 핀란드 중세 교회나 요새에 대한 낭만적 향수를 드러낸다 (그림 9). 디테일에 있어서는 외부의 벽면이나 문설주, 출입구 앞 등에 핀란드 자연 속에 발견되는 동식물군이나 갈레발라 이미지를 조각함으로 핀란드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낸다. 이는 건물 내부에서도 드러나는데, 전통 장인의 수공예로 실내 패턴이나 가구, 직물 등을 구비하고 장식이나 그림 등에 핀란드 자연과 전설이 소재가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건축물은 민족 정체성의 상징성이 강한 핀란드 국립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육중한 돌로 지어진 이 박물관은, 교회 건물이 아님에도 높은 첨탑으로 인해 전체 건물 구성에 있어서 교회를 연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세의 탑이나 성곽의 요소도 입면에 명확히 드러낸다.²⁷⁾ 그리고 박물관 외부에 세워진 곰의 조각은 (그림 10, 우하) 핀란드의 자연을 나타내고, 실내의 여러 벽화는 갈레발라를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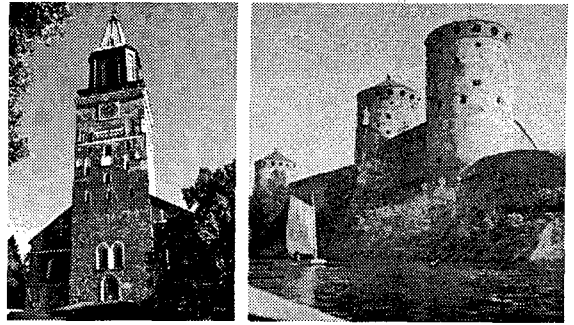


그림 9. 핀란드 중세 건물의 예: 투루쿠 성당, 14세기 (좌) 및 올라빈리나 성곽, 15세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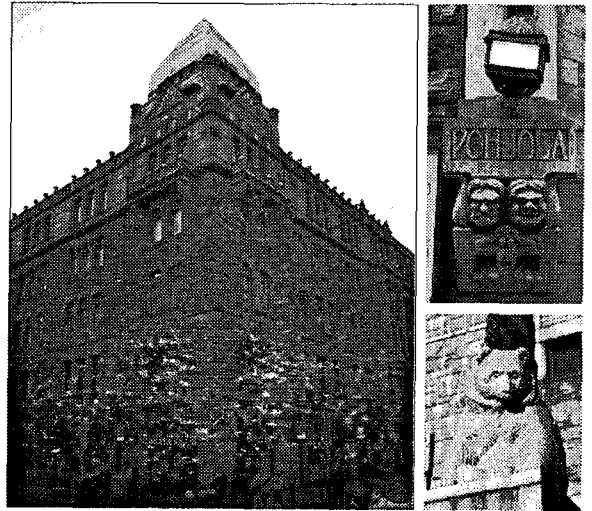


그림 10. 뽀호올라 빌딩 입면, 1901 (좌), 출구에 새겨진 부조 (우상) 및 핀란드 국립박물관 앞 곰 조각 (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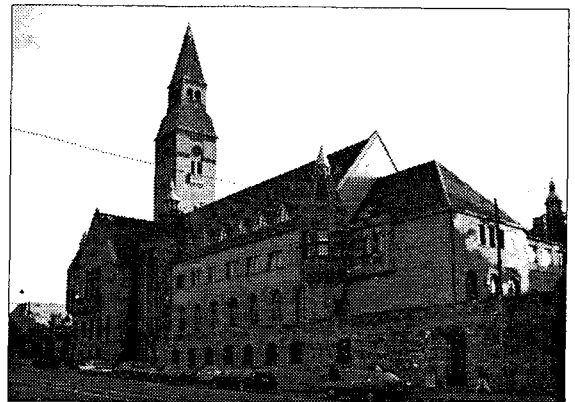


그림 11. 핀란드 국립박물관, 1902-12

26) Vilhelm Helander and Simo Rista, 『Modern Architecture in Finland』 Kirjayhtymä, 1987. Richard Weston, 『Alvar Aalto』, Phaidon, 1995, p. 12에서 인용.

27) 이 박물관의 'agglutinative principle'에 대해서는 Weston (앞의 책, p. 12)을 참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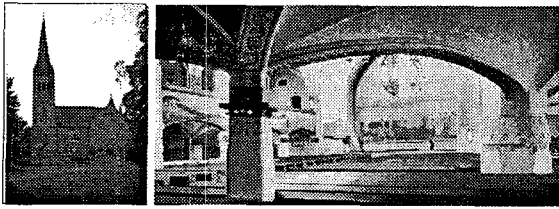


그림 12. 뎀베레 성당, 1902-07, 외관 (좌) 및 실내 (우)

3-3. 과거 양식의 주관적 차용: 혼합식 및 기타

전술한 두 가지 전형적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물은, 사아리렌, 린트그렌, 게젤리우스 세 건축가가 설계한 1900년 파리 엑스포의 핀란드관(Finnish Pavilion)과 그들 자신을 위한 스튜디오 하우스인 비뜨래스끄(Hvitträsk, 1901-03)이다. 파리의 핀란드관(그림 13)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의미가 깊다. 첫째는 민족낭만주의 모티브가 개인용 주거 건축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핀란드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supposed-to-be-Finnish) 것이 국제무대에 선보여졌다는 사실이다. 기다란 건물 몸체 위에 높은 탑이 솟아있는 형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세 석조 건축 형식을 연상시키지만, 여러 면에서 이는 위의 두 번째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건물에는 석재도 부분적으로 쓰이긴 했으나 주로 목재와 석고 패널로 구축되어²⁸⁾ 강인함이나 육중한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있는 메인 탑의 모양이나 지붕 위에 솟아있는 장식용 작은 탑들의 형상이 역사에서의 참조라기보다 건축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산물에 더 가깝다. 이러한 건축가들의 개인적 디자인 요소는 지붕의 장식이나 건물 몸체를 둘러 있는 반원형 문양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핀란드관의 내부에는 핀란드를 나타내는 회화나 공예품들이 전시되었는데, 특히 아이리스실(Iris Room)에는 갈렌-갈렐라의 가구나 직물들이 전시되었고 그가 그린 중앙 홀의 프레스코화는 갈레발라의 영웅들을 묘사함으로써 핀의 민족정신을 고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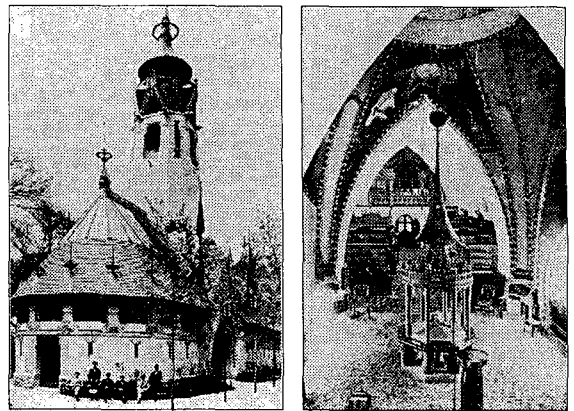


그림 13. 1900년 파리 엑스포 핀란드관



그림 14. 1922년 화재 이전의 비뜨래스끄 동측 입면



그림 15. 비뜨래스끄, 화강암으로 조적된 출입구 (좌) 및 통나무로 구축된 실내의 일부 (우)

이 핀란드관으로 국내외적 명성을 얻은 세 건축가는 수많은 디자인 요청으로 자신들만의 작업실 겸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전술한 비뜨래스끄(Hvitträsk)를 설계한다. 헬싱키 근교의 비뜨래스끄 호숫가(Lake Vitträsk)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중앙에 1층의 스튜디오가 있고 양단에 L자형의 2층 주거건물이 놓여 옥외의 정원을 둘러싸게 된다. 세 건축가의 주거와 스튜디오의 요구에 발맞춤으로 인해 비뜨래스끄는 역동적인 건물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와를 올린 다양한 레이어의 지붕구조가 두드러지며 (그림 14)²⁹⁾ 건

28) Lane, 앞의 책, 2000, p. 100.

29) 건물 북단의 린트그렌 주거부는 원래 목재로 마감된 사각 탑과 그 위에 타일이 덮인 작은 터렛이 있었으나 1922년 화재

물의 부분에 따라 통나무 벽면 뿐 아니라 석회나 펜타일로 마감된 부분도 있게 된다. 그리고 기초와 더불어 1층 부분은 대개 육중한 화강석으로 구축되었다 (그림 15). 즉, 깔렐라를 비롯해 전술한 예술가들의 집이 토착농가의 목조건축 형식을 대폭 수용했다면, 비뜨래스고는 건축가들의 필요에 의해 전통적 목조주거 양식과 석조건축 양식이 주관적으로 차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이 가지는 한계 및 의의

하지만 이러한 흐름의 건축이 당시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사아리넨 등 트리오 건축가의 핀란드 국립박물관 디자인에 발맞추어, 이성주의의 입장에서 활약했던 건축가 겸 비평가 구스타프 스트렝겔(Gustaf Strengell, 1878-1956)과 지구르트 프로스터스(Sigurd Frosterus, 1876-1956)는 그들의 '장식'과 '절충주의', '자기탐닉'을 혹독히 비판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증기여객선'과 '전기 트램', '자동차'의 근대 기술과 철과 콘크리트 등의 새로운 재료 사용을 강조하며 '서양 문화 공동의 국제주의'로의 이행을 촉구했다.³⁰⁾ 근대 과학기술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며 '기계시대'와 국제주의를 선포하던 이성주의자들에게 '과거'나 '민족'에의 천착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는 꼬르뷔제나 로스의 주장을 예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서서도 언급한 근대건축의 1세대 사가들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한 건축 사조의 가치평가는 시대적 합일을 보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느 한 스타일 - 근대건축의 경우 이성주의(Rationalism)나 국제주의(International Style)

- 에 대한 기여도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잘 반영하는 것은 살로코르페의 핀란드 민족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그는 이를 '발전 과정 중의 이탈'(digression in the chain of development)로 표현한다.³¹⁾ 그러나 이와 같은 사관은 후대 사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비판 받는다.³²⁾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민족낭만주의 건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고찰의 대상이며, 이로 말미암아 근대건축은 더 폭넓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6. 핀란드 민족낭만주의에 영향을 준 리처드슨 건축의 예: 트리니티 교회, 미국 보스턴, 1872-7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민족낭만주의 건축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그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제기하듯 이 부류의 건축은 이름처럼 그렇게 '민족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inter-national) 성격을 진하게 띠고 있다.³³⁾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이 영국의 수공예운동(English Arts and Crafts Movement)이나 미국의 리처드슨 건축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림 16) 결국은 유럽대륙의 아르누보(Art Nouveau) 건축의 한 부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갈렌-깔렐라는 깔렐라를 건축하며 윌리엄 모리스와 영국 수공예운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³⁴⁾ 사아리넨 등

로 소실되었다. 이 부분은 엘리엘 사아리넨의 아들 에어로 사아리넨(Eero Saarinen, 1910-1961)에 의해 1936년 재건되었으나 탑과 목재벽면이 사라졌고 규모도 작아졌다. Anon, 『HVIITRÄSK』, leaflet from Hvitträsk, Helsinki.

30) '... even in Finland we do not live on hunting and fishing any more, as in the old days, and decorative plants and bears - to say nothing of other animals - are hardly representative symbols of the age of steam and electricity. ... WE WANT INTERNATIONALISM ON THE BASIS OF WHAT IS COMMON IN WESTERN CULTURE' (capitals in original). Gustaf Strengell and Sigurd Frosterus, 『Architecture: a challenge to our opponents』, Weston, 앞의 책, p. 15에서 인용.

31) Asko Salokorpi, 『Modern Architecture in Finland』, Weidenfeld and Nicolson, 1970, p. 7.

32) 앞의 각주 8을 참조하십시오.

33) Richards, Salokorpi, Weston 등의 앞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건축한 석조건축물들은 미국의 리차드슨(Henry Hobson Richardson, 1838-86) 건축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으며,³⁵⁾ 핀치(A. W. Finch)와 같이 벨기에의 아르누보권 예술가가 헬싱키 응용미술학교(Helsinki school of craft and design)에 초빙되어 여러 해 동안 가르쳤다는 것은 대륙 아르누보와의 교류점을 시사한다.³⁶⁾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요컨대,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이 당시의 주요한 국제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절충주의 건축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 건축에서의 민족적 정체성 구현을 위해 국제적 흐름을 알맞게 차용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라면, 판트릴이 지적했듯, 스웨덴과 러시아가 가져온 고품을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는 더 넓은 유럽의 문화와 연계를 했던 것이다.³⁷⁾ 둘째는, 민족낭만주의 흐름이 단지 핀란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유럽과 독일, 스페인, 헝가리 등 사실상 유럽대륙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다는 사실이다. 레인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독일에 걸친 민족낭만주의(혹은 국민낭만주의) 연구서가 이의 단면을 반영한다.³⁸⁾ 하지만 여러 나라에 민족낭만주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 모든 나라에 같은 유형의 건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유럽 전반에 걸쳐 민족(국민)낭만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나라는 저마다 독특한 건축과 문화예술의 양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데,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핀족이 갖는 독특한 인종적, 언어적, 역사적 양상은 그들의 민족낭만주의를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구별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³⁹⁾

34) Gallen-Kallela-Siren는 다양한 측면에서 깔렐라에 대한 영국 수공예운동의 예를 제시한다. 인테리어나 창문 디자인, 가구 등의 실제적 요소 뿐 아니라, 갈렌-깔렐라가 영국의 수공예 운동을 대변했던 잡지인 『The Studio』를 계속 구독했던 점, 그리고 그의 화첩에 기록된 다음의 문구 등이 그 분명한 근거가 된다: 'Morris for the bedroom ... Morris for the toilet'. Gallen-Kallela-Siren, 앞의 글, 2003b.

35) 1947년 사아리넨은 자신의 건축에 있어서 설리반의 중요성에 대한 한 건축가의 질문에 리차드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이 에피소드를 비롯한 위 주제에 대해서는 Eaton이 쓴 앞의 글을 참조하시오.

36) Richards, 앞의 책, p. 66.

37) Malcolm Quantrill, 『Finnish Architecture and the Modern Tradition』, E & FN SPON, 1995, p. 19.

38) Lane, 앞의 책, 2000.

또 다른 한계는 '민족주의'나 '낭만주의'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뉘앙스이다. 독일의 나치즘의 영향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의 개념에는 늘 위협의 요소가 내재되었으며, '국가'라는 명확한 범주에 비해 '민족'은 매우 모호한 집단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잘못된 민족주의의 발로로, 오랫동안 독립을 갈구하던 약소민족의 자주적 정신마저 모두 헐값에 팔아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한편, 근대건축의 서술에 있어서 '낭만주의'라는 용어는 '비이성적인'(irrational)이나 '자기탐닉적인'(self-indulgent)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흔히 비판의 대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⁴⁰⁾ 이 역시 어감이 썩 좋지 않다. 이는 건축에 있어서 환상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1920년대에 처음 'National Romanticism'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⁴¹⁾ 그리고 야네 갈렌-깔렐라-시렌이 외경조부의 깔렐라에 대해 민족낭만주의에 승하는 고전주의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민족낭만주의'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암묵적으로 대변한다.⁴²⁾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민족낭만주의'라는 용어의 적확성(的確性)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건축사가 보른 린(Björn Lin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한동안 'national realism'(민족사실주의 혹은 국가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material realism'(재료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에 1900년대 전후 북유럽의 건축적 표현 방법

39) 필자는 건축의 결과물보다는 그 배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다. 그러나 그 독특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했던 당시의 고고학적 지식으로 인해 깔렐라의 건축은 러시아인 까렐라 지방의 건축을 모방한 꼴을 낳고 말았다. 러시아 영향을 '러시아의 악취'(Russian stink)로 여기며 정화하려던 갈렌-깔렐라에게 이는 하나의 오점이 된 셈이다. Treib, 앞의 글, p. 4.

40) Peter Blundell Jones, 「Chapter 2. The Inheritance: National Romanticism and Material Realism」 『Asplund』, 매뉴스크립트 (Phaidon, 2005년 11월 출판예정).

41) 'It [National Romanticism] was employed by Johnny Roosval and other Swedish scholars in the 1920s to stress the fantastic element in the work of architects such as Östberg, Grut, Westman, and Wahlman.' Lane, 앞의 책, 2000, p. 2.

42) 대표적인 고전주의적 요소로 그는 단순한 입면과 도리아식 기둥을 연상케하는 '깔렐라-칼럼'(Kalela-column)을 들며, 빙켈만의 그리스 예술에 대한 어구인 '고귀한 단순함과 교묘한 위대함'(noble simplicity and calm grandeur)을 여기에 적용한다. Gallen-Kallela-Siren, 앞의 글, 2003b.

에 있어서 실제 중요한 것은 낭만적 요소나 국가의 정체성 보다는 '재료'(material)와 그 '만들새'(workmanship)라 여겨졌기 때문이다.⁴³⁾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몇몇 사가들이 그를 인용하기도 한다.⁴⁴⁾ 하지만 린도 용인하듯 이 역시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작은 나라들의 민족의식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⁴⁵⁾

이와 더불어 지적될 수 있는 한계로는 민족낭만주의가 건축사 전반에 기여한 바가 크게 없다는 사실이다. 살로코르피는,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가들)은 건축계에 그 어떠한 구조적 진보도 보여주지 못했고 주택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결국 민족낭만주의 건축을 상류층을 위한 건축이라고까지 규정한다.⁴⁶⁾ 이러한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 하지만 헝가리 민족낭만주의 건축에 대한 핀란드 건축의 영향은 어찌 보아야 할까?⁴⁷⁾ 그리고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철이나 콘크리트 등 새로운 구조재에 무감했던 1900년대 전후의 여타 흐름들도 함께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공업화가 더뎠던 핀란드의 경우를 영국이나 독일 등 빠른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주택문제가 심각했던 나라들의 상황과

똑같이 견줄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당시 핀란드 지식인들 사이의 이슈는, 러시아의 심해가는 '러시아화 정책'에 대해 각자의 분야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었다.

5. 결론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갈구와 당대의 여러 사조, 그리고 건축가 개인의 창작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흐름이다. 비록 이 흐름의 건축이 절충주의적 한계,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 건축사 전반에 대한 낮은 기여도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대의 건축을 통해 우리는 당대 핀란드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 궁극적으로 민족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토착농가의 목조건축을 통해 모토쿠의(母土歸依)에의 갈구를 보였으며, 이른 중세의 석조건축을 차용하여 강인한 민족의식과 독립에의 의지를 고취시켰다. 더불어 두 유형이 혼재하거나, 건축가 개인의 상상력에 더 의존한 건물들의 예도 볼 수 있다. 건축을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 할 때,⁴⁸⁾ 건축만큼 핀란드의 1900년 전후 시대를 잘 담았던 장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핀란드의 민족낭만주의 건축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물론 통나무 건축이나 육중한 석조건축이 무조건 핀란드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무조건적 과거양식의 차용은 지양해야 할 바이다. 한 민족이나 나라의 정체성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⁴⁹⁾ 이런 의미에서 글란빌이 핀란드 토착농가건축에서 추출한 특성들 - 완성성(completedness), 확장성(extendability), 지정된 위치(appointed position), 내외부 공간의 미묘한 전이(subtle 'inside' and 'outside') - 과 핀란드 근현대건축과의 상관관계는 중요하며,⁵⁰⁾ 알토를

43) 그의 이러한 의도는 다음의 글에 뚜렷이 나타나며, 필자와의 몇 차례에 걸친 전자우편 교환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National Romanticism (which I prefer to call 'national realism' because of its strong interest and competence in technics and craftsmanship) ...' Björn Linn, 「The transition from classicism to functionalism in Scandinavia」, 『Classical Tradition and the Modern Movement』, The 2nd Alvar Aalto Symposium 1982, pp. 74-105. Björn Linn (linn.linn@swipnet.se) (22 February 2005), 「Re: 'National Realism' or 'Material Realism'?', Personal email to Hyon-Sob Kim (arq00hsk@sheffield.ac.uk) and (24 February 2005), 「Re: Material Realism ...」, Personal email to Hyon-Sob Kim (arq00hsk@sheffield.ac.uk)

44) 예를 들면, Weston은 앞의 책에서 잠시 'National Realism'을 인용했고, Blundell Jones는 'Material Realism'이란 용어를 대폭 수용했다.

45) 'And "national identity" of course is important - in varying degrees. It was of special importance in countries in the process of liberating themselves from trans-national empires, like Hungary from Austro-Hungary and Finland from Russia.' Björn Linn (linn.linn@swipnet.se) (24 February 2005), 앞의 전자우편.

46) Salokorpi, 앞의 책, p. 8.

47) John Macsai는 헝가리 민족낭만주의 건축이 핀란드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다. John Macsai, 「Competing Ideas in Hungarian Architecture」 in Wojciech Leśnikowski (ed), 『East European Modernism』, Rizzoli, pp. 113-121.

48)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 1: 시대를 담는 그릇』, (주) 이상건축, 1999.

49) 일레로 탁석산은 한 나라의 정체성 판단의 기준으로 '대중성', '주체성'과 함께 '현재성'을 손꼽는다.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50) 글란빌은 이런 특성들의 이해가 핀란드 건축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 a complex of ideas [completedness, extendability, appointed position, and subtle 'inside' and 'outside'] ... are fundamental to the

비롯한 핀란드 건축가들이 새롭게 창조한 건축 어휘들⁵¹⁾ 20세기 핀란드 건축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밀레니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듯한 국제화의 분위기는 아이러니하게 각 지역이나 나라의 특수성을 더 부각시킨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공통적 특성과 환경보존이라는 전지구적 사명 위에, 우리 건축은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결국 건축가의 '창조'라는 작업과 더불어 비평가의 '해석'의 문제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건축역사학계가 맞닥뜨려야 할 도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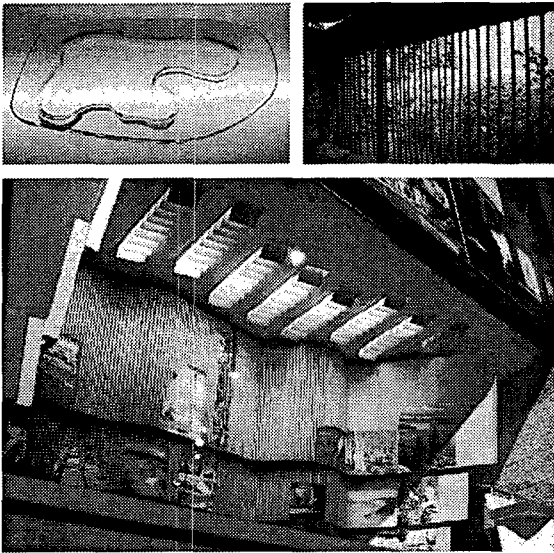


그림 17. 알바 알토가 창조한 건축 어휘의 예
- 무정형: 유리그릇 (상좌)

- 수직선의 반복: 마이레아장 출입구, 1937-39 (상우)
- 파동 치는 벽면: 뉴욕 박람회 핀란드관, 1939 (모형, 알바 알토 박물관) (하)

참고문헌

1. Anon, 『HVITTRÄSK』, leaflet from Hvitträsk, Helsinki.
2. Peter Blundell Jones, 『Asplund』, 매뉴스크

understanding of Finnish architecture.' Glanville, 앞의 글, p. 45.

51) 앞의 각주 6을 참조하시오.

3. _____, 『Modern Architecture Through Case Studies』, Architectural Press, 2002.
4. Will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1st 1982)
5. Leonard K. Eaton, 『American Architecture Comes of Age: European Reaction to H. H. Richardson and Louis Sullivan』, MIT Press, 1972.
6.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1983
7. Janne Gallen-Kallela-Sirén, 『Akseli Gallen-Kallela: The Renaissance Man of Finnish Art, 1865-1931』 『Kalela』 [online], The Kalela Museum, 2003a. Available from: <http://www.kalela.net/Akseli%20Gallen.htm> [Accessed 28th January 2004].
8. _____, 『Kalela: The Cradle of Axel Gallén's Art and Modern Finnish Design』 『Kalela』 [online], The Kalela Museum, 2003b. Available from: <http://www.kalela.net/Akseli%20Gallen.htm> [Accessed 28th January 2004]
9. Sigfrie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10. Ranulph Glanville, 『Finnish Vernacular Farmhouses』 『AAQ』, vol. 9, no. 1, 1977, pp. 36-52.
11. Barbara Miller Lan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12. _____, 『National Romanticism and Modern Architecture in Germany and the Scandinavian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3. Björn Linn, 「The transition from classicism to functionalism in Scandinavia」 『Classical Tradition and the Modern Movement』, The 2nd Alvar Aalto Symposium 1982, pp. 74-105.
14. Elias Lönnrot (translated from Finnish into English by Keith Bosley), 『The Kalevala』,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5. John Macsai, 「Competing Ideas in Hungarian Architecture」 in Wojciech Leśnikowski (ed), 『East European Modernism』, Rizzoli, pp. 113-121.
16.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Penguin, 1975.
17. Scott Poole, 『The New Finnish Architecture』, Rizzoli, 1992.
18. Malcolm Quantrill, 『Finnish Architecture and the Modern Tradition』, E & FN SPON, 1995, p. 19.
19. James Maude Richards, 『A Guide to Finnish Architecture』, Hugh Evelyn, 1966. (이 책은 약간의 보완을 통해 1978년에 『800 Years of Finnish Architecture』로 다시 출판되었다.)
20. Asko Salokorpi, 『Modern Architecture in Finland』, Weidenfeld and Nicolson, 1970.
21. Göran Schildt, 『Alvar Aalto, The Mature Years』, Rizzoli, 1991.
22. Fred Singleton, 『A Short History of Fin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23. Marc Treib, 「Gallen-Kallela: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n Architect」 『AAQ』, vol. 7, no. 3, September 1975, pp. 3-13.
24. Richard Weston, 『Alvar Aalto』, Phaidon, 1995.
25. Nils Erik Wickberg, 『Finnish Architecture』, Otava, 1959.
26. Liangyong Wu, 「Architecture in the new millennium」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ol. 5, Spring 2000, pp. 9-19.
27.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 1: 시대를 담은 그릇』, (주) 이상건축, 1999.
28.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29.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역사연구 2』, 발인, 2003.

* 그림 출처

- Lönnrot, 1989: 1
- Turku Art Museum (<http://www.turunaidemuseo.fi>): 2
- Richards, 1996: 3, 9(우), 12(우)
- Poole, 1992: 4
- Lane, 2000: 6(좌), 7(상), 14
- G-K-Sirén, 2003b: 6(우), 7(하), 8(좌)
- Weston, 1995: 13
- 필자: 나머지 모든 사진

Architectural Embodiment of National Identity: Finnish National Romanticism around 1900

Kim, Hyon-Sob

(PhD, Visiting Researcher, University of Helsinki + Alvar Aalto Academy)

Abstract

Architectural embodiment of a national identity has long been a significant topic in Korean architectural circles. For this reason, it must be helpful to examine the so-called, 'National Romanticism' of Finnish architecture around 1900 in that Finnish architects of the time struggled to embody their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ir projects. Considering the historical and linguistic affinities between Finland and Korea, the Finnish architectural situation draws our additional attention. This paper aims at showing its historical background, the meaning of each type of buildings in the stream, and limitations it implies.

The atmosphere of Finnish nationalist movement, which was provoked by 'Kalevala' publications (1835; 1845) and shown in *Karelianism*, was heightened by Tsarist Empire's Russification programme of Finland in the late 19th century. Architectur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enres expressing her national identity. Finnish national romantic architecture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he first is a log house style for artists' studio house, motivated by the Finnish vernacular farmstead - especially by Karelian farmhouse. This type of building signifies the Finns' will to return to their motherly soil. The second is a stone architecture style for public buildings, inspired by Finnish church or castle of an early medieval time. By using roughly-cut granite as the main exterior material, buildings of this type symbolise the toughness of legendary heroes and Finns' desire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 third type of building was based on both of the former or more dependent on architects' imagination and creativity.

However, Finnish national romantic architecture has been criticised by some critics owing to its decorative, eclectic and self-indulgent characteristics. Probably, it was not really national but rather inter-national because of the influences of English Arts and Crafts Movement, the American Richardsonian architecture and the continental Art Nouveau. And the negative images of 'national' and 'romantic' made some historians coin other terms like 'national realism' or 'material realism'. As another limitation, one raises the low degree of its contribution to the entire architectural history. Despite these criticism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Finnish national romantic architecture is meaningful in itself, particularly because it illustrates vividly Finns' struggle to search for their national identity and, after all, their craving for national independence.

Keywords : national identity, Finland, National Romanticism, modern architecture
